

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미 연방정부 부채 법정한도 도달

- 지난 5월 16일 미 재무부는 연방정부 부채가 법정한도인 14조 3천억 달러에 도달함에 따라 더 이상의 지출을 막기 위한 투자중단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, 이를 통해 8월초까지는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.
 - 재무부는 우선 채권발행을 통한 연방정부 공무원 연금펀드 적립을 당분간 중단하고 펀드 운용자산을 일부 매각할 방침이며 연금펀드 투자액 부족분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조정과 함께 원상 복구될 것이라고 밝힘.
 - 또한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1천억 달러를 인출하고 2천억 달러 상당의 특수목적 차입 프로그램을 중단함으로써 8월초까지는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봄.
 -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미국의 신용을 보호하고 경제충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조속히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조정에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고, 버냉키 연준 의장도 부채한도 상향조정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함.
-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이 장기부채 감축을 위한 재정지출 삭감과 세수확대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에 부채한도 상향조정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금융시장은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공화당 측은 오바마 정부가 장기부채 감축을 위한 대규모의 재정지출 삭감을 보장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, 재정지출 삭감과 함께 세수확대를 병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음.
 -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, 지난 5월 13일 3.17%를 기록했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부채한도 도달 발표 후에도 3.15%로 하락하는 등 채권시장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.
 - 한편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이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월말 현재 1조 1,45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미 국채의 최대 보유국 지위를 이어감.

(LA Times 등, 5/16)